

서점가에 이는 환경보호의 '녹색바람'

80년대 이후 고조된 관심 반영...국내 저술은 아직 미흡

한동안 국민여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수도물오염사건'과 '牛脂라면소동'은, 최병두 교수(대구대)에 의하면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의 문제가 보다 심화됨에 따라 이에 관한 보편적 의식을 줄곧 고조시킴으로써 당연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전체국민에게 부과하고자 한" 정부당국의 '음험한' 계산 속을 채워주는 해프닝에 불과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의 파장이 가라앉으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고조라는 결과를 남긴 것도 사실이다.

심각한 환경문제에 비해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회 일각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87년부터. 활발히 전개된 민주화의 열기가 환경문제를 시민운동의 한 갈래로 자리잡을 수 있는 활동공간을 보장, 국민적 관심폭의 확장과 더불어 보다 활기를 띠게 되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특히, 이와 같은 국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올해로 20돌을 맞는 '지구의 날' 행사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기폭제로 삼아 '하나뿐인 지구'에의 관심밀도가 높아지고 있고, 유럽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녹색당의 활동상황이 국내에 소상히 전달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눈뜸'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관점에서 씌어진 환경관련도서

이러한 사회전반의 분위기에 힘입어 이즈음 서점가에는 환경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식들을 제공하는 책들이 출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환경파괴의 주범을 '진보주의'에 입각한 과학기술만능주의에서 찾고 있는 환경관련도서들은, 그 해결점은 논자의 전망에 따라 각기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인간과 자연환경」(Andrew Goudie 지음, 손일 외 옮김, 신학사, 1986)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변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환경파괴의 요인을 추적하고 있는 책. 현대에 들어오면서 기계론적·이원론적 사고가 팽배해지면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줄어든 결과 환경이 파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환경론」(데이비드 페퍼 지음, 이명우 외 옮김, 한길사, 1989)은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철학적·민중론적 이해'라는 부제가 나타내듯, 환경문제의 사회적·물질적·이데올로

기적 성격을 고찰하고 있는 '경향성'이 짙은 책. 각기 상이한 환경론을 떠받쳐주고 있는 수많은 사상과 철학들을 간명하게 포착하고 있는 이 책은,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이 인류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변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런 시각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의 문제가 강조되고 있어 아직 '초등단계'인 국내 환경운동에 시사하는 바 많다.

유럽에서 일기 시작했던 환경보호의 '녹색바람'이 국내 출판계에 상륙했다. 산업화과정의 본격적인 진행과 더불어 점차 심각해지기 시작한 환경문제에의 '눈뜸'을 촉구하는 책들이 최근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선보이며 '하나뿐인 지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구환경보고서 1990」(레스트 R. 브라운 외 지음, 김법철 외 옮김, 따님, 1990)은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연구단체인 '월드워치 인스티튜트'가 오늘의 지구의 '건강상태'를 맥짚기한 책. 1984년부터 연감식으로 계속 발행되어온 이 보고서는 지구적 차원에서의 환경문제에 대한 최신정보와 함께 실현가능한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앞서 여섯 차례에 걸쳐 출판된 지구환경보고서에서 이미 밝혔듯이 지구환경의 질 저하는 아직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삼림이 줄어들고, 사막은 늘어나며, 토양은 나빠지고 있다. 우리를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성층권의 오존층이 고갈되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대기내에 열을 가두어두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효과 가스가 계속 증가되어 이제는 그 현상이 예측가능한 형태로까지 발전했다」는 머리글에서 알 수 있듯, 작금의 지구환경을 절망적으로 진단하는 이 책은 전세계인들이 속히 '진보에의 환상'으로부터 깨어나길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는 한국관계 자료가 곳곳에 인용되고 있어 환경오염의 문제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하고 있다.

앞의 책들이 환경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들이라면 「원은 단허야 한다」와 「작은



80년대 중반 이후 고조되기 시작한 환경문제에의 관심이 부응하는 책들이 최근 연이어 선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심하게 오염된 하천의 모습.

것이 아름답다」는 문명비판적 시각에서 현대 과학기술의 폐단을 지적함으로써 환경문제를 간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책이다. 「원은 단허야 한다」(카머너 지음, 송상용 옮김, 전파과학사, 1979)는 뒤의 책보다 환경문제를 본격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대안을 찾고 있다. 환경오염의 원인을 과잉인구, 과잉풍요, 과잉생산에서 찾는 통설을 부정하고 기술의 변화 속에서 그 가능성을 논구하고 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슈마허 지음, 김진옥 옮김, 범우사, 1986)는 현대공업문명을 비판하고 있는 책. 현대인들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만 열중한 나머지 자원을 남용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연을 파괴하는 생산체제와 인간을 불구로 만드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장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현대문명에 대신하여 '중간기술'과 '새로운 조직'을 통한 작은 세계를 꿈꾸고 있다.

맹아적 단계에 머문 국내 연구서

국내연구자에 의해 씌어진 환경론은 아직 출간되지 않은 상태. 단지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공해문제를 줄곧 제기해온 '공해문제연구소'의 자료집이 우리 환경파괴의 일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내 땅이 죽어간다」(일월서각, 1983) 「한국의 공해지도」(일월서각, 1986)가 바로 그것으로 "우리의 성장계획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수요와 국민의 소비가 증대될 것이므로 환경오염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엮었다"는 것이 편자의 말. 앞의 책은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공해문제를 인식하는 입문적 글이 주로 실린 반면 뒤의 책은 우리나라 공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 실상을 충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발로 만든" 책이다.

「환경오염」(元鍾益 지음, 명지사, 1990)은 '쓰레기치우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단계 환경보호운동을 비판하면서 "환경오염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를 사례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환경오염의 대책방안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당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진지하게 펼쳐져 있다.

「한살림」(한살림, 1990)은 무크로 국내의 저명한 문인, 학자, 예술가들이 결성한 동명의 운동단체가 만든 책. 이 운동단체 특유의 세계관에 입각해 체제를 초월한 산업문명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후천개벽적 사상을 설파하고 있다. 특집으로 「세계의 녹색운동」이 다루어져 있어 세계에서 일고 있는 환경운동의 현주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시장성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환경관련 도서들이 출간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승환씨(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회과학과장)는 "그간 억압적인 통치체제 아래에서는 사실상 공개될 수 없었던 환경문제가 최근엔 각종 매체를 통해 제기되면서 일반들의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한다. 이런 현상이 국내에서만 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는 이승환씨는 "일단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대중들에게 객관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자료집들이 앞으로 출간될 전망"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제기되어온 환경문제가 보다 조직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이론적 토대의 책 또한 출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우 기자